

함께 즐거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82

2017. 8.20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
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_ 사도행전 9:31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더 바이블
- 3 교단 소식
- 4-6 여름 수련회 특집
- 8-9 비전트립 보고서
- 11 목회 칼럼
- 12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8/27(주일) 임시당회
- 9/3(주일) 성찬주일
- 9/5(화) 늘푸른대학 개강
- 9/6(수) 겨자씨 개강
- 9/7(목) 양육클래스 개강

발행인 : 김성식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무궁화는 고조선 때부터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한국의 나라꽃이다.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꽃이 피고, 공해에도 강하다.

광복절,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기억하자

8월에는 ‘빨간 날’ 이 하나 있다. 8월 15일 광복절.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다. “광복(光復節)”이란, 말 그대로는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으로, “국권을 회복한 기념일”이다.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은 그 이전에 “빛”을 잃은 날이 있었음을 뜻한다. 그 “빛”을 잃은 날이 또한 8월에 있으니 8월 29일 국치일(國恥日)이다. 말 그대로는 “국가적인 치욕의 날”이요, 뜻으로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다.

광복절과 국치일이 2주일 차이로 있는 8월은,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달이기도 하다. 역사는 반복되며, 역사는 오래된 미래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성경적으로 광복과 국치가 어떤 의미인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명 23:7)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호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명 32:8)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행 17:26)라고 하여 국가의 독립과 공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지 않은, 물질과 권세를 우상화하고 이를 위해 이웃을 침략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렘 51:58)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이웃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가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지를 예감하게 한다.

그러나 “광복절”과 “국치일”을 맞아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 것은, 다름아닌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삼아 이스라엘을 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국치일 이후 3.1운동까지만 해도 이 땅의 기독교는 잃어버린 국권에 대한 소망과 불의에 대한 항거를 이끄는 한 축을 담당했지만,

이후 기독교는 정치적 문제에서 점차 벗어나 교세 확장을 위해서 대부분 일제 통치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사참배에 항거하는 순교자도 드물었던 슬픈 역사였다.

광복 후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산업화 과정과 이후 경제 성장 시대에 교회의 규모가 외형적으로 폭발하는 가운데, 교인들의 증가에는 또한 맘몬의 영향이 작동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후유증은 세대가 바뀐 많은 대형 교회에서 권력과 물질의 쟁투와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존경을 받기는커녕 “개독교”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광복절”을 기념하기 이전에 다시 “국치일”의 원인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

바알을 숭배하고 맘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만드는 우리 안의 모든 왜곡을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광복절을 맞아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개혁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바벨론 포로 이후 회개한 이스라엘을 본 받아야 할 때다. 함즐함울

종교개혁 이야기 8

개혁교회의 아버지, 홀드리히 츠빙글리

루터와 동시대에 스위스 취리히 지방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었다. 그는 루터교회와 함께 유럽의 종교개혁시대를 이끌었던 개혁교회(Reformed Church)의 아버지로 불리는 홀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이다.

츠빙글리는 루터보다 7주 정도 늦은(루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 1484년 1월 1일 스위스의 빌트하우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 사제였던 삼촌 바르톨로뮤(Bartholomew)



츠빙글리의 초상화

에게 보내져 공부하였고, 이후 바젤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1506년 사제로서품을 받은 후 약관을 갖 넘긴 20대 초반부터 글라루스와 아인지델른에서 12년간 목회를 하였다. 이때까지는 종교개혁가로서의 직접적인 면모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는 이 시기에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와의 만남 등 경험들을 통해 변화되고 있었다. 츠빙글리는 35살 생일을 맞던 1519년 1월 1일부로 '고린도와 갈디' 스위스 외교의 중심지 취리히의 그로스뮌스터 교회(Grossmünster, '대성당'이라는 뜻)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가 청빙을 수락하면서 공언했던 대로, 그는 다음날부터 마태복음에 대한 설교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였다. 그것은 가톨릭과 루터교가 행해오던 이미 주어진 그날의 본문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연속적으로 설교하였다는 것이다.

츠빙글리가 취리히에서 첫해를 보

내고 있던 여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유럽엔 무시무시한 질병이 돌았다. 이는 취리히 인구의 3분에 1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흑사병이었고, 9월에는 자신도 그 병에 걸려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 이때 츠빙글리가 지은 시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츠빙글리는 회복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경험은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도록 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신학적인 질문에서 출발했다면, 츠빙글리는 훨씬 더 피부애와 와 닿는 고민들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교회와 사회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고, 이로 인해 츠빙글리 신학은 다



츠빙글리가 사역했던 그로스뮌스터 교회

른 종교개혁가들보다 훨씬 사회윤리적 성향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제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와 세상을 철저히 개혁하는 사명자로 존재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박주영 전도사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더 바이블 (The Bible) 5

4.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2. 성경은 지리와 문화, 역사를 포괄한다.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지리는 특정한 장소와 공간을 중심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소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건을 전개시켜가는 방식을 취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덧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소가 중심지역이 되고 그밖에 나라나 수도는 주변 지역이 되는 인식을 갖는다. 사실 신학적으로 성경 속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시편 87편에서 예루살렘인 시온을 향해 세계의 중심지 어머니라 하는 독특한 표현방식을 취했다. 이것은 시온이 곧 세계의 중심이라는 상당

히 도전적인 메시지이다. 실제로 박동현 교수는 "구약 신앙 전통에서 시온은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1)라고 말한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소는 그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의 지리는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수립되고 성취되는 신학적 의미도 함께 갖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리를 알아두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문화나 역사, 종교를 이해는 첫 걸음으로 매우 중요하며 유용한 일이다. 그림 1)은 이스라엘과 주변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부지역으로 분할한 지도이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주변은 현대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로 둘러싸여 있다. 즉 이집트는 과거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요르단은 에돔과 모압땅을, 시리아는 앗문과 앗수르 땅을. 이라크와 이란은 바

벨론과 메데와 바사에 대한 현대지명이다. 결국 성경의 지리를 통해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있어서 서로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 나라의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유일신앙을 꽃피우고 지키려 했는지 궁금증을 갖도록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정치, 외교, 역사적



그림 1) 고대 및 현대의 지명과 함께 국경을 표시한 근동의 지도



그림 2) 가나안의 분할

인 관계를 맺고 유일신의 종교를 갖추는지 살펴봐야만 한다. 이은석 목사

1)박동현, 『구약학개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49.

2)고대 및 현대의 지명과 함께 국경을 표시한 근동의 지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7380&cid=43010&categoryId=43010>

교단 소식

(사)한국기독교연합 창립

교단 기관지 한국기독교공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교회 46개 교단이 참가하는 가칭 (사)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지난 8월 16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정관과 조직 등을 임시로 채택했다. 한기연은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15개 교단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39개 교단의 연합체(양측 모두 속한 교단 8개)로, 이날 창립총회엔 한교총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예정 고신 교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연은 당분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성희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김선규 총회장,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의 4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로 운영되며,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오는 12월 첫 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김선규 목사의 사회로 열린 총회에선 기성 총무 김진호 목사가 임시서기로 선임됐으며, 대신 총회장 이종승 목사의 경과보고와 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 고시영 목사의 정관안 보고 등이 이어졌다. 사무총장은 예상 합동 김창수 총무가 임시로 맡게 됐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뤄진 한국교회의 연합'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예상 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돼 다시는 갈라지는 일이 없어야겠다"며,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복음 증거와 바른 신앙 수호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한교연 2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도 격려사를 통해 회원 교단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에 목적을 두고, 다른 점이 아닌 같은 점을 찾기 위해 힘쓰며, 하나돼 함께 성장하는데 힘쓸 것을 당부했다.(한국기독교공보인용)

함줄함줄

교단 소식

전임 박원호 목사, 실천대학원총장 취임 포부 밝혀

지난 6월 18일 주님의교회 임기를 마치고 퇴임후, 다음날인 19일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 취임한 전임 박원호 목사 인터뷰 기사가 한국기독교공보에 수

록되었다. 취임 후 활동에 대한 포부가 담긴 인터뷰여서 기사 내용을 전제한 다.

함줄함줄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곳 되게 할 것”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농부가 들판에 뿌린 겨자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저를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고, 의와 평화,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제5대 총장에 취임한 박원호 목사는 '총장'의 직분을 '농부'로 비유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인되시고 다스리는 곳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 전날인 6월18일 섬기던 주님의교회에서 퇴임예배를 드리고, 바로 다음날인 19일 총장 취임예배를 드렸다"는 박 총장은 "아무리 종이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려 먹을 수 있습니까 하는 원망도 있었지만 농부는 헌신하면서도 오직 의로움, 평화, 기쁨 마음만 가질 뿐"이라고 다짐을 피력했다. 박 총장은 "인격 없는 지식, 성령 없는 교리, 거룩함 없는 전통, 헌신 없는 설교, 이웃 없는 찬송, 희생 없는 권세, 역사 없는 영성을 우리 학교는 거부하겠다"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천되고 삶이 되는 학문의 전당이자 실천의 장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겠지만 특별히 북한선교는 이 학교가 감당할 거룩한 사명이며 헌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임 손인웅 총장의 뜻을 따라 학생 전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교회가 부른 사람들이며, 교회를 섬기기 위해 훈련받는 사람들인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한국기독교공보 2017. 7.4.)

선교 이야기 8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2)

후원자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선교사들은 사역지에 온 이후로 지속적으로 파송 교회, 선교단체, 개인 후원자들에게 기도편지, 진행 중인 사역 보고, 재정 보고 등등 수시로 알려주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가끔 몸이 아프다거나 개인적인 어려운 일을 당하여 연락이 수개월 이상 끊어지면 후방에서는 즉시 연락이 오며 파송 교회의 선교정책과 사역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방향성이 틀어지지만 해도 금세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사역지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후방에서는 전혀 이해하질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많다. 잠깐 1-2주 정도 다녀가는 비전트립 팀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잠시 본 것들을 마치 오래 살고 온 것처럼 과장되어 말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재정 후원자들이 자신이 보내

준 재정이 조금이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장 후원을 중지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한 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봉합되지 않기에 선교사와 후원자들은 서로 깊이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영적인 긴급함

모국에 있을 때에는 정기적인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영적 공급을 받지만 현지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공급을 받아야하고 선교사들 끼리도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격려해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는 사역에 앞서서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영적 무기인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이라고 항상 영적 충만함을 유지할 수

는 없다. 선교사들도 영적인 병에 걸리기 쉽고 그럴 때 누구에게 터놓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치유가 더 힘들 수 밖에 없다. 선교사들이 안식년에 모국에 들어오면 영적 상태를 점검 받고 필요하다면 상담 및 영적 재충전을 받아야만 한다.

후원자들의 관심과 기도가 핵심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외에도 재정, 테러, 추방, 건강, 가정의 문제, 파송의 중단,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선교사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며 모국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며 사는 것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

사가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하며 영웅적인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후원을 중단하려 하거나 비판적인 언행을 깊은 생각없이 말하곤 한다. 선교사는 후원자들의 관심과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사소한 전화 한 통이나 격려의 메일이 선교사에게는 자신이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다. 비판은 파급력이 강해 너무도 쉽게 번져갈 수 있기에 언제나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선교사에 대한 격려는 언제나 선교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분과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 여름 수련회 소식 ★

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올 여름을 뜨겁게 한 주님의교회

유아부 "예수님 따라 홀리"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4~5세 아이들이지만, 알록달록 정성껏 꾸며진 싹트네실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들어와 엄마도 잊은 채 신나게 찬양을 하고 말 씀도 듣고 마음껏 뛰어놀며 함박웃음을 지으며 온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과반 김윤채(5세) 어린이는 엄마에게 성경학교가 끝난 후 "마음 속에 하트가 점점 커 졌어! 성경학교가 너무 재미있었어!" 라고 말했다는 문자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느끼고 배우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 : "거룩은 뭐라고요?"

아이들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싹트네 아이들의 씩씩한 외침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유은하 교사 / 유아2부

유년부 "우리는 하늘 가족"

2017년도 포도나무 유년 1부,2부 연합 여름성경학교가 7월 28, 29일 양일간 진행되었습 니다. 약 100명의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뛰놀며 '우리는 하늘가족'이라는 주제아래 서로가 온전히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기존의 공과공부 대신, 연극과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센터학습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낯선 성경말씀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 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담긴 이번 성경학교는 준 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 니다. 이 시간이, 세상의 빛으로 자라날 아이들의 눈부신 앞날에 아름답게 추억될 반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주님의 향 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윤정진 교사 / 유년부

유치부 "사랑하며 HOLY"

2017년 7월 22일, 23일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HOLY" 라는 주제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거룩하다는 사실 과, 거룩하게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운 후 센터학습과 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든 활동을 즐거워했지만 무엇보다 많은 활동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은 물놀이를 제일 즐거워했습니다. 매년 성경학교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도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물 놀이를 할 때 좋은 날씨 주셨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께서 보조 선생님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친구들도 더욱 행복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아이들 을 보며 '이 맛에 봉사하자~' 란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 유치부 교사는 항상 모집 중이 라 다른 성도님들과도 이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상미 총무 / 유치부

초등부 "나의 사랑하는 책"

나는 출발하기 전에 긴장이 되고 좀 슬펐다. 왜냐하면 가족과 헤어져서 그런 것 같다. 버스에 탔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도착해서 조를 봤는데 나는 7조였 다. 그리고 저녁에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을 했다. 스토리가 있으면서 찬양도 같이 부르 는 것이었다. 제목은 '말씀을 사랑한 요시아 왕' 이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나의 사랑하는 책, The Book" 이다. The Book은 성경책이다. 주제곡은 아주 신났다. 지 금도 머리에 맴돌고 있다. 워터월드의 물 썰매는 힘들었고, 돌아다니며 미션을 깨는 센터학 습도 했다. 밤에는 블랙라이트를 했다. 난 그것이 제일 맘에 들었다. 여름성경학교는 하나 님을 더 알고 배우는 것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은 정 말 잘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뿌듯했다. 여름성경학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 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년 여름성경학교도 벌써 궁금하다. 이연서 초등부



소년부 "두더지"

우리 소년부는 원주에 있는 동서울 레스피아에서 2박 3일동안 여름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두더지'였습니다. '영을 두 배나 더 지니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센터학습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정말 주체처럼 영을 두 배나 더 지닐수 있는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시간에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기대가 컸던 물놀이 시간에는 무더위를 싹 잊게 해주는 시원한 물에서 첨병거리며 맘껏 놀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쇼갯텔' 즉 장기지랑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끼와 재능을 한껏 뽐내며 함께 웃고 즐기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누구보다 애쓰고 힘써주신 전도사님, 선생님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홍예진 소년부**

고등부 "세상에 움씨를 뿌리다"

지난 7월 23일 주일, '세상에 움씨를 뿌리다'라는 주제로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으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움씨'는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는 곳에 다시 한 번 뿌리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맛덕뜨린 사역의 현장은 숨이 막힐 듯한 더위와 습한 날씨,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마지막 날 마을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모두 모시고 삼계탕과 공연을 보여드리는 마을잔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께서 '고맙구나'라고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실 때, '다음에도 꼭 와줘'라며 안아주실 때, 그리고 마을 아이들이 헤어진다는 아쉬움에 눈물을 터트릴 때, 가슴 속에 솟아난 뜨거운 울림과 몽글한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움씨를 뿌리기 위해 매곡 마을로 갔는데, 오히려 그 곳에 계신 분들을 통해 내 마음에도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던 복음의 움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박시현 고등부**

중등부 "거룩한 예배자"

나는 중등부에서 단 한 번도 수련회를 간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가고 싶어져서 월요일에 방학식임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신청하였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수련회는 나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었다. 특히 "거룩한 예배자"라는 이름을 가진 수련회다운 것들을 나에게 많이 전해주었다. 수련회는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고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첫 날은 주일이라서 같이 할 수 있었지만, 월요일은 아침게도 방학식이 있어서 오전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못하고 재미있는 오후 프로그램만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도 저녁 집회는 정말로 나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불타는 청춘" 집회는 이번 수련회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좋았다. 나도 덕분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컨디션 난조 때문에 힘들었지만, 여름수련회 덕분에 친구들과 더욱 친해져서 좋다. 다음에도 참석하고 싶다. **김유진 중등부**

청년부 "제주에서 복음을 외치다"

청년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주도로 국내선교 사역을 다녀왔다. 애월에 있는 우리평강교회를 중심으로,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와 이마용 사역을 진행하였고, 가정을 방문하여 방충망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경로당에서 마을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을 섬겼다. 몇 년 동안의 헌신과 노력 때문인지 드디어 직접적인 복음전달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선교팀은 봉사시간을 이용하여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제주에는 우리에게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복음이 시급하게 전해져야 할 선교지이기도 하다. 1907년 복음이 전해진 이후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화율은 8%가 채 되지 않으며, 외지인을 제외하면 원주민의 복음화율은 2%에 불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청년들은 제주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그 땅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하였다.

유준 전도사 / 청년부



고등부



유치부

유아부



중등부



청년부

제9회 전국교회 청소년 수련회 "이제 그만 쉬자"

청소년 사역원에서 주최한 제 9차 전국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7월 27(목)부터 7월 29일(토) 까지 2박 3일간 열렸다. 전국 29개 교회에서 130여명의 청소년과 53명의 스태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모니를 이루었다. 금년에도 장신대 교회교육연구회 팀이 스태프로 봉사를 하며 더욱 더 풍성하고 즐거운 수련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주제는 "이제 그만 쉬자" 였다. 이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한다는 의미로 그동안 소원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만 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의미이다. 첫날에 경직되었던 청소년 들은 서울 투어, 야시장, 말씀 기도회와 레크레이션 등으로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어 다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갔다. 수련회 마지막 날 새벽 4시 밤을 새우게 지새운 교사들은 마지막 예배를 철저히 준비를 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향하였다.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 을 감당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된다. 힘들수록 더 웃는 모습, 땀가를 바라지 않고 한계를 넘어서서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닐까?

박준범 전도사 / 청소년사역원



전국교회 청소년 수련회

장애인사역부 "그리스도인"

7월 29일(토) 장애인사역부 여름수련회가 사랑나무실에서 있었다. 40여명의 장애인사역부의 봉사자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수련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인' 이었다. 수련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고백의 단어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함께 할 때만이 비로소 완성되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경에는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써 있다. 하나님의 가치는 모든 생명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가치를 이 땅에서 완성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일 것이다. 이번 여름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의미 있는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함께 결단하였다.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느꼈다.

송비율 전도사 / 장애인사역부



장애인 사역부 여름 수련회

7시간 성경통독사경회를 마치며



한 마디로 예상외로 대성황이었다. 8월 5일(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로회와 안수집사회 주최로 김명호 목사(은혜로교회 담임)를 초청하여 7시간 성경통독사경회를 중매실에서 가졌다. 말씀의 갈급함 때문인지 주님의교회 성도뿐 만 아니라 군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 여자 목사님, 새벽기도를 우리교회에서 드리시는 타교회 성도님들,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찾아 오신 양평의 성도님, 그리고 주변의 타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포함하여 당초 예상과는 달리 600여명의 많은 성도님

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은혜롭게 사경회를 마쳤다. 이른 아침부터 긴 시간(총 11시간) 동안 소리를 내어 성경통독을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진정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귀한시간을 가졌다며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었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최우철 안수집사

간증

말씀 속에 폭 빠진 하루

- 성경통독사경회를 마치고

8월 12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7시간 말씀 통독사경회라는 천국 잔치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속독으로 한목소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다는 체험했습니다. 정독도 필요하지만 다독도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교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15분까지의 말씀 속에 폭 빠져 아무 것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를 감동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사랑을 받고 은혜 속에 인도를 받음으로 속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부정했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나라에 이르시길 축원합니다.

김양자 은퇴장로

사역 간증

문경 용연교회 농촌교회 봉사를 다녀오다



7월 17일 (토) 문경 용연 교회를 돕는 국내 미자립교회 선교사역에 미용사 역팀에서 동참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받고 기도로 준비하였다. 미용기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 손길이 필요한 봉사의 현장이라면 미용실 문을 닫고서라도 가곤 했었다. 올해도 그곳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갈망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

행사였는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인근 지역의 어르신 130여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의료봉사, 장수사진, 호스피스, 무용부, 주방팀, 미용팀 6개 부서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발휘하여 종일 어르신들을 섬기기에 바빴다.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혹은 함께 협력하여 맛있는 점심과 다과를 대접하며, 아픈 손발을 어루만져 드리고, 예쁜 사진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한국무용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드리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였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기에 매순간 주님이 함께 하셨으리라. 오늘 미용기술이 선교를 위해 꼭 필요로 한 달란트임이란 것도 또 다시 깨닫게 하였다. 외모를 가꾸어 주는 시간동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헤아리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전도사님 머리를 직접해드리며 그분의 간증도 접할 수 있었다. 산간마을

교회를 여성의 몸으로 반평생을 홀로 지키며 불우한 노인들을 섬기면서 주님만 바라본 나날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완고한 어른들과 가까이하기 위해 고스톱을 배우고 돈을 잃어 드리고 함께한 나날들이 고스란히 내 마음으로 다가왔다. 잔치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로 인해 오늘이 당신의 최고의 날 이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전도사님...

모두가 협력하여 주님과 함께 땀을 흘린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팀장님, 지도권사님, 부원들의 간증이 이어진다. 이번 봉사과정에서 보았던 기적과 받았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며, 선교현장에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몇 백배의 달란트로 되돌려주시는 주님, 불러주시고 동행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아름다운 시골 교회 전도사님의 환한 미소가 여운으로 남는다.

민영정 권사 / 국내선교부 이미용팀

선교 교육 소개

미션 퍼스펙티브스(PSP) 선교 교육을 소개합니다.

퍼스펙티브스의 뜻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관점들”이라는 의미, PSP) 선교훈련은 선교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선교 교육입니다.

훈련을 개발한 분은 미국세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창시한 선교신학자 랄프 윈터 박사입니다. 1973년 시작한 이래로 미국에서만 약 20만명의 성도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북미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현재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

이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상하 2권으로 저명한 선교신학자, 현지 사역자들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저술된 170여권의 저서들이 이

해하기 쉽게 2권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쿠바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퍼스펙티브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2001년 3월부터 USCWM과 수료증을 공동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2002년부터는 목회자 및 사역자들을 위한 집중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사역을 확장하게 되어 현재 2만 여명의 성도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선교한국에서 시작된 한국 PSP의 발전은 짧은 년 수에 비해 놀라운 성장을 보여, 다수의 학생들과 목사,

선교사, 전도사, 평신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선 2012년부터

주님의교회에서는 2012년 시작하여 올해 6회 째를 맞고 있는데 올해는 9월 7일(목)부터 12월 7일(목)까지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가량 제3집회실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 15분의 스텝들이 온 힘을 다하여 섬겨주시고 계시며 현장 사역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의 강의와, 튜터의 강의 정리, 양화진 선교사 묘역 혹은 이슬람 사원 방문 혹은 선교사와의 만남 등을 포함한

조별 특별 활동 등이 12주 동안 이어집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선교이야기, 선교학교, 선교대학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선교훈련 과정들이 주님의교회 안에 있었지만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그 어떤 선교 훈련보다도 심도 있고 포괄적이며 먼저 머리로서 선교를 이해한 다음 가슴으로 이해하도록 참가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대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귀한 기회였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이 과정을 수료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손영익 인수집사 / 해외선교분과

2017 비전트립 보고서

올해 비전트립은 베트남과 코스타리카, 키르기스스탄에서 진행되었고, 아프리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취소되었다. 한편, 선교지 청소년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역비전트립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되었다. 사명과 봉사로 함께한 비전트립의 귀한 여정을 단기선교사로 헌신한 성도들의 기록으로 남긴다.

2017 베트남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모든 것이 기적같이 완벽했던 2016 베트남 비전트립. 하나님께서 완벽히 준비하신 곳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은혜로만 가득하였기에,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나눠 주고 싶어 2017년 베트남 비전트립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월 1일
8월 1일 새벽 5시 30분 많은 성도들에게 후원 받은 물품들과 함께 땀 흘리며 포장한 의약품과 갖가지 선물 짐가방을 싣고는 베트남으로 향하였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비전트립 팀은 허준 목사님을 포함하여 총 41명으로 5박 7일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4시간 반의 비행 후,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였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베트남은 좀 더 화려한 간판들로, 더 많은 차량과 여전히 많은 오토바이들을 통해 베트남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우리는 선교사님과 함께 베트남 남부의 빈롱성으로 향하였다.

의료 사역과 어린이 사역: 8월 2~3일

작년에 우리가 전한 사랑에 감동하셔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곳에 뜻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작년에 방문했던 히우

탄면의 보건소에서 주님의 교회팀의 방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감사했다며, 정부에 우리의 재방문을 요청해 주셨고, 정부의 허락하에 우리는 같은 곳을 방문하는 흔치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작년보다 우리는 한 시간 먼저 도착해 약국과 진료실을 준비하고 베트남 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내과와 산부인과 선생님의 진료로 약 35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주었으며, 추가로 방문하신 분들께는 우리가 준비한 약 선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였다. 함께 찾아온 아이들에게는 귀여운 강아지와 꽃을 풍선으로 만들어주고, 얼굴에는 예쁜 그림도 그려주었다. 선물과 우리의 호의 받는 것에도 멍쩍어 하던 분들이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내년에도 또 볼 수 있기를 서로 바라듯 우리도 이 틈간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사역을 마치고 함께 미소로 손을 흔들며 화답하였다.

집짓기 사역: 8월 2~3일

튼튼한 팔다리를 가진 16명의 팀원들은 버스와 오토바이 그리고 배까지 타고서야 푸득면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세 가정의 집을 지어주고 페인트칠을 해주었다. 초등학교에서 70세의 집

사님까지 다양한 연령이 함께 했지만, 무더운 날씨에도 서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의 사랑이 느껴졌을까?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코코넛 야자수와 현지 과일 등으로 푸짐하게 대접받았다. 우리가 돕고자 왔는데 풍성히 대접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학교 방문, 복지센터와 안빈교회에서 선물 전달 및 문화공연: 8월 4~5일

올해는 작년과 달리 모든 팀원들이 2개의 학교에 방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공책, 그리고 자전거를 선물해주었다. 또한 방문한 학교와 복지센터, 후원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준비한 문화공연을 함께 하였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어린이들이 준비한 무언극과 고등부의 태권무와 부채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스킷드라마와 마음을 울리는 한국의 전통음악인 가야금 연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랑을 맘껏 나눌 수 있었다. 아이들이 보여준 연극처럼 우리에게도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작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먼 곳까지 와주어 감사하다며 베트남에서도 귀한 음식들로 대접받았다. 더욱 신기한 것은 연극에 쓰인

귀여운 소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자, 작은 사랑도 나누면 커진다는 어린이들의 무언극 주제처럼, 내 것을 줌으로써 내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공허함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마음이 너무나 벅차올랐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고, 우리가 전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서 베트남 땅이 빨리 복음으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해졌으면 좋겠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8월 6~7일

사실 이번 베트남 비전트립 중 작고 큰 사고들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조금 무거운 맘과 불편함이 가득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더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우쭐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고 완벽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요. 우리는 그가 하시는 큰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됨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러자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하신 말씀처럼 다양한 연령과 다른 성품, 다른 모습을 지녔지만 우리는 주안에서 함께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게 하셨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신기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내 손에 가득 움켜 쥐려하기보다는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참 기쁨임을 알게 하셨다. 이번 베트남 비전트립 역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내년엔 또 어떤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주어질지 기대된다. **박정수 집사**

2017 코스타리카 비전트립을 마치고



코스타리카는 그야말로 땅끝이었다. 여정은 교회 출발 아침 7시30분으로 시작하여 코스타리카 센타 도착에 도착하니 현지시간 7일 오전1시30분이었다. 총 33시간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다. 돌아오는 길도 현지에서 오전 8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아

침6시로, 총 31시간이 소요되었다.

코스타리카에는 주님의교회에서 2005년 파송한 금상호 선교사님과 김미경 선교사님 부부, 자제인 잔다, 강산이 13년째 사역하고 있다. 현지 선교사의 주요 사역은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월요 목회자 교육(년12회)

과 교사 모임(주말 월2회),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인디언 지도자 훈련(년6회), 성경 쓰기 사역, 성경 통독 사역, 교도소 사역, 수지침, 안경 사역 등이었다.

첫째 날 선교사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는데 1995년 8월~2005년 4

월까지의 이민목회와 2005년~현재까지 선교사역의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를 토대로 우리 팀은 선교사님께서 지난 13년 동안 이루어 놓으신 선교사역지 20개 교회 가운데 5개 인디언 교회, 1개 현지교회, 2개의 초등학교, 1개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우리가 준비한 말씀, 위셋, 스킷드라마, 비즈공예, 풍선아트 등으로 사역하였다.

산골 오지인 인디언 마을은 아직 전기가 들어오진 않지만, 선교사님이 일구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이번 비전트립 기간 동안 체험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사역의 중심에서 선교사님은 오늘도 내일도 인디언 마을로 향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드릴 것임을 믿는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묵묵히 사역에 임하시는 선교사님 내외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박성열 집사

역비전트립 : 선교지 청소년 초청 수련회를 마치고

선교지 청소년 초청 수련회는 우리 교회 선교지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현지 복음화에 헌신하는 비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련회이다. 본 수련회는 2016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가 2차년도이다. 작년에는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진행의 효율을 위하여 베트남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베트남 남부복음성회(남부총회) 산하 교회의 목회자 자녀이며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남부총회에서는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여 선발하였으며 여기에 소수민족도 포함시켰다. 학생 12인, 통역 1인 및 인솔자 1인해서 총 14인이 초청되었고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6박 7일 동안 진행되었다.

수련회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복음화 과정에 대한 임창진 목사 특강,

양화진 선교사 묘역 탐방, 홈스테이를 통한 우리나라 가정 경험, 우리 교회 중등부 수련회에의 참여, 우리 청년들에게서 위셋 댄스 및 K-POP 배우기, 한국어 강좌,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고궁 등 문화탐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베트남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하여 주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였다. 베트남의 인구 약 1억명 중 기독교 교인은 1~1.5%에 불과하여 그곳 목회자들은 베트남 사회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들었다. 목회자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 기독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줄 수 있어 감사하였다. 이 행사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우들, 또한 홈스테이 제공으로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 교우들께 깊이 감사



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참가학생의 간증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이번 여정에서 제가 앞으로 베트남교회가 성장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베트남교회가 한

국교회처럼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베트남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독교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용규 안수집사

선교회 소식

세계를 주님의 품으로

남선교회 연합 워크숍과 새벽기도회

남선교회는 7월 14일과 15일 일박이 일동안 청평 자연 휴양림 리조트에서 40여명의 임원들과 선교회 담당 세분의 목사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예배와 기도회를 시작으로 양동훈 연합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이 워크숍에서 2018년 사업을 논의하여 확정을 지었다. 2018년에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맡아 주관하기로 했으며, 전반기에는 무지개잔치 겸 교구대항 전교인 체육대회와 후반기에 교구대항 찬송가 경연 대회를 남선교회에서 개최하기로 의결을 하였다.

남선교회에서는 또한 7월 22일 남선교회 주일 새벽기도회에서 70명의 회원들이 참석을 하여 은혜로운 찬양으



로 특송을 하였으며 그 주간 새벽기도회에는 “지금은 기도할 때,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어로 남선교회 주최 새벽기도 주간을 선포하여 1주일간 매일 80여명의 회원이

매일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를 하였다. 남선교회는 주님의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이 교제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조직된 교회 조직이다. 그동안 잠정적인 휴지상태였으나 오랜 준비

를 거쳐 2017년 조직이 재건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아래 “간추려본 남선교회의 역사” 참조).

노대홍 안수집사

간추려본 남선교회의 역사

남선교회 태동

주님의교회 남선교회는 교회 창립과 역사를 같이 한다. 창립하여 소규모 교회였을 때부터 조직이 되어 선교와 친교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정신학원 캠퍼스에 대형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고 이전을 해 온 후부터 방대한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잠정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임원진의 기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남선교회의 필요성 대두

그리스에서 시작된 고대 올림픽은 로마시대 때부터 인류 화합의 장으로 정착이 되었다. 그러나 작은 전쟁으로 잠정 중단이 되었다가 꾸베르 팜 남작의 주장으로 근대 올림픽으로 재건되었다. 이처럼 부침을 거듭하며 발전을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제 청년기를 넘어 장년기로 들어선 주님의교회에 한축을 담당할 정식 기구로 남선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재건 준비활동

2015년 하반기 안수집사회에서 남

선교회의 재건을 의결하고 조직과 예산 면에서 산실 역할을 자임하였다. 2016년에는 첫 사업으로 조찬기도회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주님의교회 장로로 시무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와 연예활동을 함께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임동진 목사를 초빙하여 신앙 간증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남선교회 재건

2017년 초에는 남선교회를 이끌어갈 조직이 편성이 되었고 임원들도 선출이 되었다. 연령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제1남선교회로 55세 이상은 제2남선교회로 40세 이상은 제3남선교회로 세분화하여 편성이 되었으나 당분간 응집력의 극대화를 위해 연합 남선교회가 운영하도록 의결하였다.

2017년 회장단

각 회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합남선교회 회장: 양동훈 은퇴장로
연합남선교회 총무: 김익훈 장로
제1남선교회 회장: 최재규 은퇴안수집사
제2남선교회 회장: 서정하 안수집사
제3남선교회 회장: 김명훈 안수집사

2017년 전반기 활동

2017년 첫 사업으로 3월 25일 중예배실에서 남선교회 두 번째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권오승 은퇴장로는 특강에서 남선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주었고 후임 담임목사 청빙과 남선교회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두 번째 사업으로 정신학원에 기부체납하고 임대하여 사용 중인 본당 건물에 대한 50년 계약 만료 후에 대한 대책과 정제된 향존직 선출현황과 턱없이 부족한 장로의 확보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서기장로에게 제출하였다.

세 번째 사업으로 5월 20일에 3층 초등부실에서 연합 남선교회 친선모임을 개최하였다. 예배 후 2부 순서로 홍근용, 엄주청, 박대길, 정종국 장로가 주제별로 각각 특강을 해주었다. 3부에서는 교회발전 토론회 시간을 가졌으며 연령 별로 4개 팀으로 나누어 바람직한 목회자상 10가지와 장로상 10가지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전개하였고 점심 식사 후에는 초청 마술공연과 친교와 오락 시간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입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

여 남선교회 회원이 300여명으로 불어난 귀한 성과를 거두었다.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의 “즐거운 참여”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사업으로 이어나가기로 의결했다.

향후 계획

하반기 남선교회 주최로 수요헌신예배를 열기를 계획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며 성실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부흥을 시켜 세계를 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양동훈 연합회장은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모든 남성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자격이 있으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하였다.

주님의교회 남선교회는 기도와 선교와 친교를 통하여 원숙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 갈 것이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은 심령에 포근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오늘도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선한 청지기 공동체를 목표로 쉽이 없이 매진 할 것이라 다짐한다.

노대홍 안수집사

목회칼럼

교회와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의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그때는 북만처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북을 치고 소리를 높여도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지금은 교회가 사회에 끌려가고 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며 향수에 빠집니다.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과거엔 교회를 통하여 문화와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사회 자

체적으로 문화와 교육을 이루어내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문화와 교육 발달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소리에 담긴 내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북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깨우는 진리였습니다. 지금의 북소리는 성장만을 위하고, 보여주기 위한 소음이 되어버린 영혼 없는 구호입니다.

과거의 북소리는 즐거움과 기쁨, 희락과 헌신의 소리였습니다.

지금의 북소리는 자동차의 경적소

리, 이기적인 고함소리입니다.

새로운 북소리, 추억 속의 북소리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북소리,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종교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북소리, 그 북소리는 바로 이 시대의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생명, 소통과 화합, 인권과 참여 같은 가치들의 북소리입니다.

이 가치들은 이 사회의 기저에 흐르는 이 시대의 가치들입니다. 신앙인이기 전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품고 가야 할 가치입니다. 신앙인이기에 더욱 더 실현을 위해 수

고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요즘 문제가 있다고 언급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성경적 진리 이전에 이러한 시대의 보편적 진리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진리는 우리 삶에 새겨진 보편적 가치들 위에 덮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먼저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들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소리를 만들어 내면 그 울림이 점점 커져 참된 북소리가 될 것입니다.

김용웅 목사

교단 소식

기독교 용어 정립 시급

지난 8월 7일자 한국기독교공보의 기사 수첩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 용어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 이미 함글함글에서 2014년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시리즈를 연재한 바 있으나,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기독교 용어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사를 전제한다.

함글함글

기독교 용어 정립 시급

"서울 종로5가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과 연동교회 등이 있어 '기독교 메카'라고 할 수 있지요."

흔히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가운데 어법에 맞지 않거나 심지어 타종교어가 있어 올바른 용어 정립이 시급하다. 자주 혼동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성지나 기관이 몰려 있는 곳을 '기독교 메카'라고 하는데, '메카'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출생지로서 이슬람권의 성지로 추앙받는 곳을 뜻한다.

나이가 들어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간 사

람을 일컬어 '늦깎이 신학생'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지만 이는 불교 용어와의 혼용사례다. '늦깎이'는 "나이가 들어 승려가 된 사람"을 말한다.

예배와 예식에서 집례와 순서를 맡은 이들끼리도 기독교 용어가 엇갈린다. 기독교 용어와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6회 총회에서는 기독교윤리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대적 어법에 맞지 않는 용어를 대대적으로 고쳤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총회는 최근 예배·예식서 표준개정판을 발간하며 일부 불필요한 용어들을 삭제하고 수정하

는 작업을 했으나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기도 중 용어가 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으로, '기도 드렸습니다'는 '기도 드립니다'로, '대표 기도'는 '기도 인도'가 적합하다. 또한 '대예배'는 '주일예배'로, '성가대'는 '찬양대'로, '축제는' '잔치'로, '소찬'은 '별세'로, '자백'은 '지명'으로, '개식사'는 '예식사'로 바꾸는 게 맞다. '헌금'은 '봉헌'으로 바꾸는 게 적합하다. 단순히 돈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의 은총 앞에 교인들이 응답한다는 의미다. 신동하 기자(한국기독교공보 2017. 8.7)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역사 45

해방 후 복교(3)



김규식박사와 부인 김순혜(3회졸업). 학교복교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미군정은 일제에 의해 적산으로 넘어갔었던 재산을 미북장로회 선교부 재산으로 다시 환원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할 선교사가 거의 없었다. 학생 및 교사 모집 등 선교사들이 직접 학교를 재건시킬 능력이 없었고, 이미 태평양 전쟁 이전에 한국의 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선교부는 한국 교회가 이들 학교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았고, 선교부는 조력자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 북장로회 소속 8개 학교 중 정신여학교를 제외한 7개 학교는 태

평양 전쟁 이전에 지역 노회나 개인 등 한국인에 인계가 되어 있었으므로 전쟁이 일어나자 정신여학교만 '적산'이 되었고, 해방이 되자 미 북장로회 소속의 유일한 학교가 되었다.

1947년 2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서울노회)와 동창회가 학교 재건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장 김순애(3회, 김규식박사 부인), 교장 김필례(1회)를 선임했다. 5월에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그동안 사용하던 정신여학교 교사(校舍)를 비웠다.

1947년 여름에 북장로교 한국선교

부는 한국교회나 기관에 학교 소유를 넘기고, 협조하는 것을 선교의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 선교부는 노회와 정신여학교 동문회가 정신여학교 재건에 착수하는 것에 5,000달러의 긴급자금을 시설복구비로 지원했다. 1)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1) 투자된 자금은 해외선교부의 '재건기금' 중 '시설복구'를 위한 항목에서 나왔다. 이 금액은 얼마 후 7,000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향존직 선거 시행 공고

2017 향존직 선거 시행공고

● 향존직 선거 일정

- 향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8/20(주일)
- 당회의 공천 투표 : 8/27(주일)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9/17(주일), 2차선거 9/24(주일)

● 향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0명

알립니다

<함즐함울> 기사를 모집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문서선교를 위해 펴내는 격주간 교회 신문인 <함즐함울> 기사를 모집합니다.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하나님과의 소통, 교회와의 소통, 성도간의 소통을 위한 지면으로 구성됩니다.

- 세례자이며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상 되는 분.
- 만사십세가 안 되시는 분.
- 신문사, 잡지사, 학보사, 출판사에서 취재, 편집 경험이 있거나, 없지만 배우고 싶은 분.
- 교회 내 여러 사역 활동을 두루 알고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
-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며, 이전에 <함즐함울> 기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
- 카툰, 일러스트, 사컷 만화에 관심이 있는 분.
-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있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새로운 감각과 관점으로 <함즐함울>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교우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위에 적힌 여러 조건에 맞아 사역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께서 hamletter@daum.net 으로 연락을 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저희 함즐함울팀으로 모시겠습니다.

함즐함울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에 기사, 수상, 간증 등의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즐함울 편집지침(주님의교회 규정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과 지면 사정에 따라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해 드립니다.

함즐함울

‘배달의 함즐’ 오늘 신청하세요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함즐함울을 보내드립니다. 받을 분 주소와 부수를 hamletter@daum.net으로 알려주세요.

함즐함울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월~금)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7.24~8.25에는 여름휴가 기간이어서 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2017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교육안내

- 교육일정 : 2017년 9월 7일 ~ 11월 30일
매주 목요일 오후 1-5시
- 장 소 : 각당복지재단 강당 (중로구 경희궁길 29)
- 대 상 :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분
- 교 육 비 : 130,000원 (교재비포함)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 본인부담 50,000원
- 특 전 : 교육 수료 후 200시간 봉사 시 소정의 시험 후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 발급
- 등록문의 : 소봉순부장 010-5230-4120
설정희총무 010-4654-5108

알립니다

하반기 교구 일정

1.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각교구)
2. 겨자씨 모임 개강 및 9월 금요기도회(7교구 주관)
- 9/1(금), 저녁 9:00, 본당
3. 겨자씨 인도자 모임 개강: 9/6(수)
4. 겨자씨 인도자 계속 교육 및 신입 겨자씨 인도자 교육
- 9/13(수)~10주간: 4층 대회의실

알립니다

1. 2017 향존직 후보 중직자 추천 투표

일시 : 8/20(주일) 오전8:30~오후3:30

장소 : 다목적실(지하1층 사랑나무실 맞은편)

참여자 : 장로(은퇴, 사임, 협동), 안수집사(시무, 은퇴), 권사(시무, 은퇴), 겨자씨인도자, 제직부서장

문의 : 최영인 안수집사(010.9251.7494)

2. 유소년축구팀 모집 및 2학기 개강(5세~13세)

일시 : 8/27(개강)~11/19 매주일 오후1:30 학교 운동장

접수 : 8/20(주일) 선착순 마감

문의 : 좌봉준 집사(010.8759.8904)

3. 양육클래스 가을학기 개강 9/5(화)~12/9(토)

접수 : 8/27(주일), 9/3(주일) 오전 8:30~오후 2:00

접수장소 : 1층 로비

문의 : 방순희 권사(010.3622.1368)

4. 주방부(1부) 봉사자 모집

시간 : 주일 오전 5:30~8:30(시간조정가능)

문의 : 강대수 안수집사(010.9612.7980)